

# [JP 모건 체이스] Volta AI 데이터센터 부채 조달 50 억달러 주선 - AI 인프라 파이낸싱 확대의 실증



26.08.2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 핵심 요약

- JP 모건, Volta AI 데이터센터에 50 억달러 부채 조달 주선
- 프라임·파이낸싱 수요 구조적 성장 흐름과 같은 맥락
- 단일 딜 규모는 작아, 반복 여부와 신용 집중도가 관건

JP 모건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Volta 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자금으로 50 억달러 규모 부채 패키지 조달을 주도했다. 회사가 직접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차입 주선(신디케이션) 역할을 맡은 딜로, JP 모건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수익과 주선 수수료가 동시에 생기는 구조다.

이번 건은 우리가 지난 실적에서 핵심 동력으로 짚었던 흐름과 같은 결로 읽힌다. Equity Markets 매출이 전년 대비 86% 급증한 배경에 프라임 브로커리지·파이낸싱 수요의 구조적 성장이 있다고 봤는데,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자본지출을 부채로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흐름과 맞닿아 있다. IB 수수료가 2021 년 이후 최고치를 찍고 글로벌 인수주선 1 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대형 파이낸싱 딜을 얼마나 많이 따내느냐와 직결된다.

다만 50 억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JP 모건 전체 대차대조표나 분기 순이익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다. 단일 딜 하나로 실적 추정치를 바꿀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런 유형의 딜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쌓이는지가 중요하다. AI 인프라 투자 붐이 이어지는 동안은 은행이 수수료와 대출자산을 동시에 늘릴 기회지만, 자본지출 사이클이 꺾이거나 특정 차주의 신용도가 흔들리면 집중된 익스포저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JP 모건이 유사한 AI 인프라 파이낸싱 딜을 얼마나 추가로 확보하는지, 그리고 이런 대출 자산의 신용 스프레드와 차주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발성 뉴스로는 제한적이거나, 이런 딜 흐름이 누적되면 CIB 부문 수수료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 항목           | FY Dec-24 | FY Dec-25 | FY Dec-26 (E) | FY Dec-27 (E) | FY Dec-28 (E) |
|--------------|-----------|-----------|---------------|---------------|---------------|
| 매출 (Revenue) | 180.59    | 185.58    | 208.47        | 213.04        | 222.51        |
| ↘ 증가율        | 11.23%    | 2.76%     | 12.33%        | 2.19%         | 4.44%         |
| 매출총이익        | —         | —         | —             | —             | —             |
| ↘ 마진         | —         | —         | —             | —             | —             |
| EBITDA       | —         | —         | —             | —             | —             |
| ↘ 마진         | —         | —         | —             | —             | —             |
| 영업이익 (EBIT)  | 85.76     | 86.81     | 97.78         | 99.68         | 100.53        |
| ↘ 마진         | 47.49%    | 46.78%    | 46.91%        | 46.79%        | 45.18%        |
| 순이익          | 56.87     | 59.02     | 67.50         | 65.16         | 67.99         |
| ↘ 마진         | 31.49%    | 31.80%    | 32.38%        | 30.59%        | 30.55%        |
| EPS          | 19.75     | 20.62     | 25.10         | 25.01         | 27.03         |
| ↘ 증가율        | 21.69%    | 4.41%     | 21.71%        | -0.35%        | 8.07%         |
| 잉여현금흐름 (FCF) | —         | —         | —             | —             | —             |
| P/E          | 12.1x     | 16.1x     | 14.2x         | 14.3x         | 13.2x         |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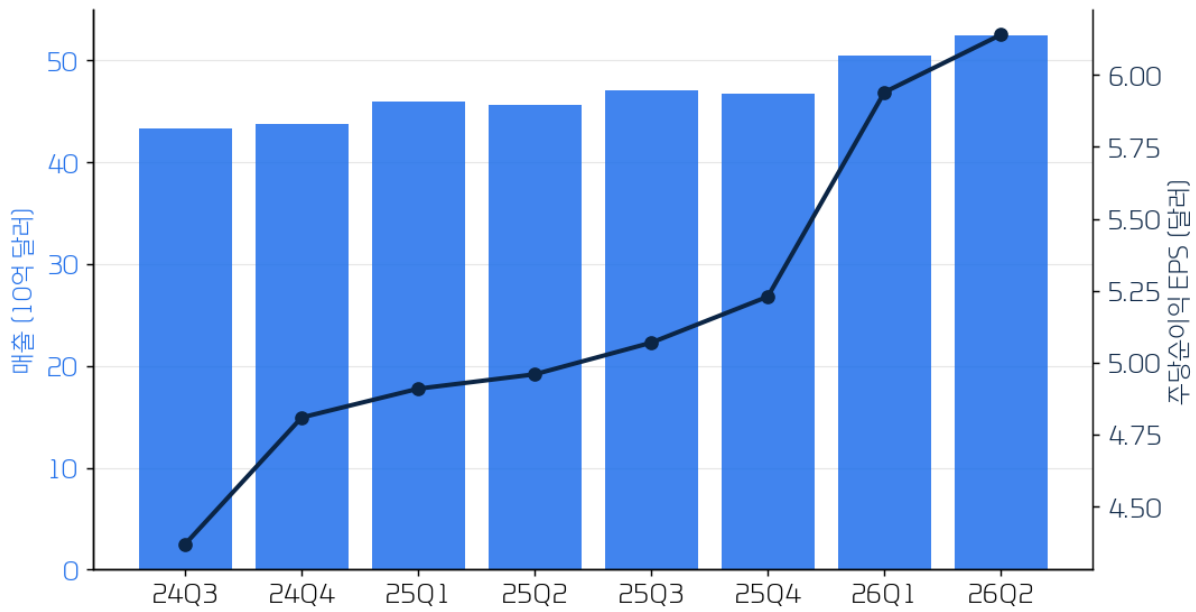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 참고 차트

### JPM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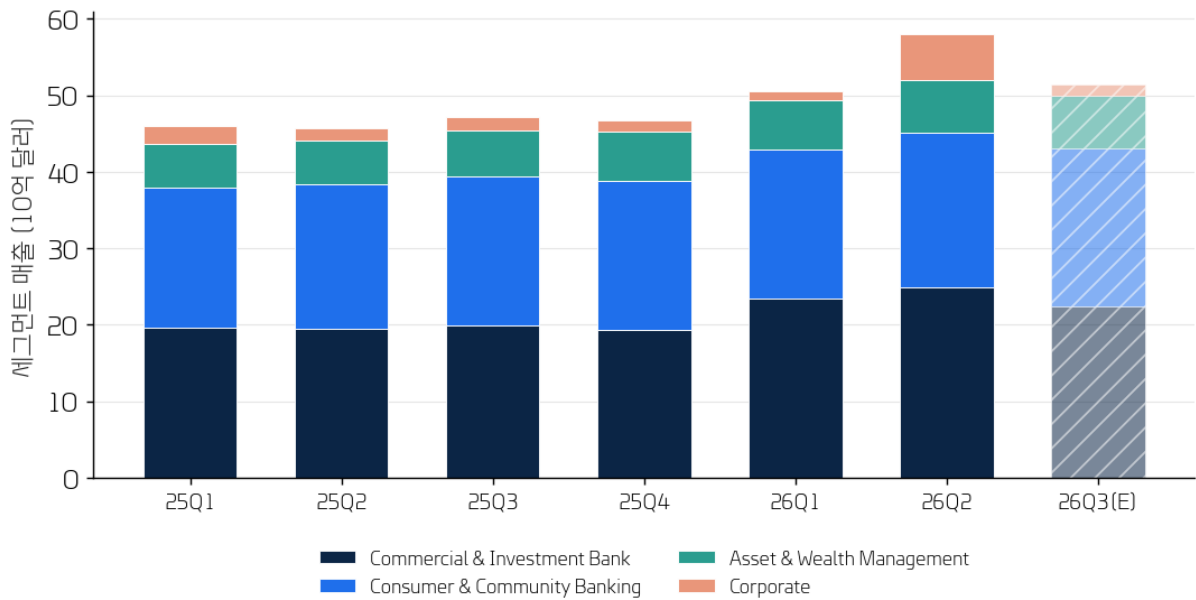


### JPM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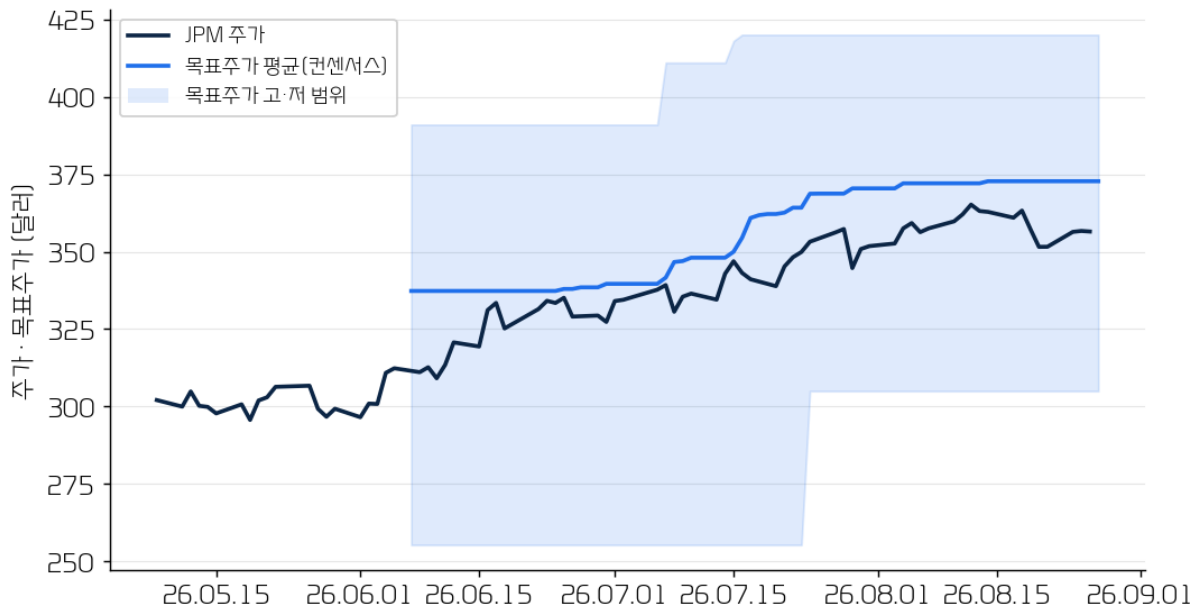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JPM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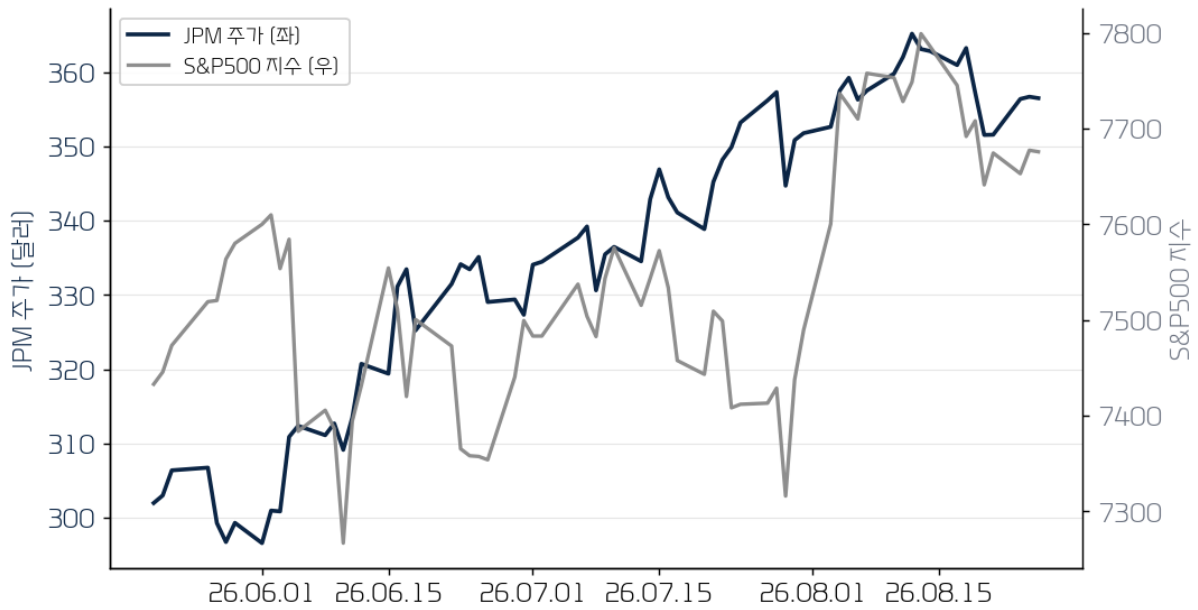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JPM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JPM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